

碩士學位論文

明珠寶月聘의 천상계에 대한 수사적 접근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1986年 12月

明珠寶月聘의 천상계에 대한 수사적 접근




指導教授 玄 容 駿

夫 璘 植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86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大璘植의 文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김 영 준	
委 員	玄 容 駿	
委 員	梁 淳 玟	

濟州大學校 大學院

1986年 12月

RHETORICAL APPROACH INTO HEAVENLY
WORLD OF *MYOUNG-JU PO-WOL-VING*

Bu In-Sik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Yo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86. 12

목 차

I. 서 언	1
II. 천상계의 두 가지 국면	5
1. 존재론적 의미	5
2. 수사적 의미	9
III. 천상계의 수사적 기능	13
1. 문학적 관례와 천상계	13
2. 작품의 비현실성과 천상계	14
2.1 변 신	15
2.2 요약 사용	17
3. 서술 양상과 천상계	19
3.1 내포 규범	19
3.2 인물 구성	20
3.3 서술자의 권위	24
3.4 거리 통일	27
IV. 수사학과 형이상학의 갈등	30
V. 결 어	36
참고문헌	38
Summary	41
작품의 줄거리	43

I. 서 언

한국 고전 소설의 역사적 진개를 논술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500餘種을 헤아리는 작품의 대부분이 작자 및 저작 연대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작자와 저작 연대가 비교적 뚜렷하게 알려진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고전 소설의 흐름을 잠정적으로 개관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설사의 시대 구분이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1) 15·16세기 소설로 15세기 말에 나온 <금오신화>와 16세기에 성립된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잡은 시기이다. 봉건 사회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소설에서 나타났고, 이런 생각이 소설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으리라 본다. (2) 17세기 소설로 <구운몽>과 <창선감의록>이 이 시기의 것이고 <숙향전>, <유충렬전> 등도 이 시기의 것이 아닌가 한다. 형식과 문체는 전 시기에 비해 성장했으나, 주제면에서는 오히려 관념적·운명론적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3) 18·19세기 소설로 연암 소설(燕巖小說), 판소리계 소설 및 <泉水石>, <報恩奇遇錄> 등을 이 시기의 작품으로 본다. 소설의 장르적 성장이 더욱 진척되었으며, 봉건 사회의 해체 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²⁾

그런데, 조선 왕조의 소설 문학은 18세기 후기로 들어오면서 大河小說群이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³⁾ 이 대하 소설군은 작품의 길이가 그 이전의 소설보다 수백 배나 길어졌고, 내용도 그 당시까지 형성된 거의 모든 문어체 국문 소설의 내용을 단일 작품 속에 포함하였으므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대하 소설군은 일반적으로 여러 家門이 혼례를 통하여 결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란만장한 사건의 연속을 보여 준다. 여러 세대에 걸친 전통 가문 및 가문 창달의 방법으로 자녀들의 성장과 출세담, 혼례담을 그리면서, 가문간에 벌어지는 복잡한 사건이 四色黨爭의 그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부류의 소설에 家門小說이라는 유형 분류의 명칭이 붙기도 한다.⁴⁾

「明珠寶月聘」은 「尹河鄭三門聚錄」, 「嚴氏孝門清行錄」과 더불어 三部連作小說의

1) 丁奎福, “古小說의 歷史的 展開”, 丁奎福·蘇在英·金允淳 共編, 「韓國古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83), p. 23.

2) 「國語國文學辭典」, (서울대학교 東亞文化研究所, 1973), p. 91.

3)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研究社, 1983), p. 703.

4) 李樹鳳, “家門小說論”, 張計복·소재영·김광순 公刊, 앞의 책, pp. 260-279 참조. 정병욱 교수는 家系小說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바 있다.

형태로 이루어진 대하 소설이다. 작품 분량이 100 卷 100 冊이나 되고, 등장 인물의 수만도 200 명을 넘는다. 이 작품은 현재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이 유 일본으로서, 180 卷으로 되어 있는 「玩月會盟宴」과 139 卷으로 되어 있는 「林花鄭延」 그리고 105 卷으로 되어 있는 「尹河鄭三門聚錄」과 함께, 고전 소설에 있어서 四大小說로 인정되고 있다.⁵⁾

대하 소설에 대한 논의는 작품 규모의 방대함으로 말미암아 문학사적 중요성에 비해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의 내용은 대부분이 작품의 梗概를 소개한 것들로서, 작품 분량을 고려한다면 이는 본격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학의 본질적 연구라 할 수 있는 작품 구조의 해명이나 문예학적 연구를 지향하는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⁶⁾

「명주보월빙」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① 등장 인물과 그 갈등 구조의 문제 ② 작품의 존재론적 특징이나 세계관 등과 같은 내용적 측면의 것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내용보다도 작가가 그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제 즉, 서사 소통의 측면에서 「명주보월빙」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작품 이해에 있어서 수사학적 접근(Rhetorical Approach)을 의미한다.⁷⁾

필사는 「명주보월빙」을 수사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천상계'라는 공간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천상계라는 현대 소설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요소에 대한 본능적 호기심의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명주보월빙」이 갖고 있는 허구적 서사물로서의 특성을 작자와 독자 사이의 서사물 전달의 체계라는 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학적 차원의 연구는 문학 연구의 중심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러시

5) 金起東, 앞의 책, p. 729, p. 733.

6) 대표적인 논문을 몇 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金鎮世, "玩月會盟宴研究(一)", 《冠嶽語文研究 2 輯》,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7)/金鎮世, "玩月會盟宴研究(二)", 《冠嶽語文研究 4 輯》,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9)

金鎮世, "玩月會盟宴研究(三)", 《冠嶽語文研究 5 輯》,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0)/李相澤, "明珠寶月聘研究: 그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1》

成淑, "明珠寶月聘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金起東, "明珠寶月聘과 尹河鄭三門聚錄: 李朝連作小說의 研究(其四)", 《徐炳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 형실출판사, 1979)/崔吉容, "明珠寶月聘連作小說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1984》

7) 소설과 같은 허구적 서사물에서 수사학은 작자가 자신의 작품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들의 상상적 동감을 얻고,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을 말한다. (M.H. ABRAMS의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崔翔圭 譯, 大邦出版社, 1985, pp. 249~250)

아 형식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우화(Fabula)와 주제(Suzet)라는 개념의 구별은, 허구적 서사물에 있어서 작가가 사용하는 수사적 자원이 무엇인가를 밝힌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⁸⁾ 문학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역시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의 고전 소설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작품의 내용 자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위에서 말한 서사물 전달의 체계 또는 수사학적 연구를 지향하는 예는 많지 않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문체, 어조, 서술법, 시점 등에 대한 것인데, 현대 소설에 비해 고전 소설에 관한 이 분야의 논의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⁹⁾

천상계를 서사체 전달 구조의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익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작품 세계를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한 작자의 수사적 자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고전 소설의 시점, 어조, 문체 등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서술 양상은 부분적이고 현상적으로 다루어진 감이 있다. 이것은 고전 소설의 여러 수사적 국면을 일관성 있게 포괄하는 연역 원리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소설 수사학적 측면에서 천상계를 연역적 근거로 이해하는 것이 작가 의식의 갈등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18·19세기 소설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명주보월빙」을 비롯한 가문 소설들은 작품 세계를 향한 작가의 관점이 통일되지 않은 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갈등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천상계의 작품 구조적 성격이다. 그것은 개인의 존재론적 고뇌를 보여 주면서, 그와 동시에 조선 후기의 과도적 성격을 문학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명주보월빙」에 나타나는 천상계의 공간적 성격을 서사체 전달 구조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시론적 논의를 함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고자 한다.

-
- 8) 롤랑 부르비르·레알윌레 共著·金華榮 譯述, 「소설의 세계」, (文學思想, 1985년 3월호), pp. 205~207, 주① 참조.
츠베탕 토도로프 編·金治洙 譯, 「러시아 形式主義」, 이화여대 출판부, 1981. pp. 207~224 참조.
- 9) 이 분야의 연구로서 들 수 있는 대표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金炳國, “고대 소설 敘事體와 敘述視點”, 李相澤·成賢慶 編,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1983/金興圭, “관소리의 敘事的 構造”, 趙東一·金興圭 編, 「관소리의 理解」, 창작과 비평사, 1978/曹壽鶴, “古小說文體考”, 「韓國語文論叢」, 姜鏞樹博士回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형설출판사, 1976/崔昌祿, 「韓國小說의 文體論的 研究」, 형설출판사, 1981.

앞으로 이 글에서 「명주보월빙」을 인용할 경우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轉寫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II. 천상계의 두 가지 국면

「명주보월빙」에서 천상계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의 국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작품의 내용 구조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존재론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담론 구조'라는 서사체 전달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수사학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⁰⁾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는 위의 두 가지 구조에 대한 인식이 모두 이루어져야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상계의 작품 구조적 의미를 존재론적 측면과 수사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두 가지 구조적 측면을 통합하여 그것이 갖는 작품적 의의를 고찰하려고 한다.¹¹⁾

1. 존재론적 의미

인간의 삶은 언제나 두 가지 존재론적 차원을 공유한다. 하나는 역사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超歷史의 차원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한편에 있어서 역사라는 범주에 귀속하며 부단히 그의 지배를 받고 또 그것을 형성해 가지만, 그와 동시에 역사를 넘어서 초시간적으로 존재하는 질서와도 근원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역사에는 세속성, 초역사에는 거룩함이라는 존재론적 의미가 부여되어 인간 경험과 존재의 기본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¹²⁾ 시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존재 양상이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비중을 차지할지언정 어느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명주보월빙」에서 천상계는 초역사적 삶의 공간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지상적 삶의 모순과 불완전성을 극복한 본질의 세계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적 삶의 내용을 미리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양식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규범의 근원지이며, 도덕적 판단 기준까지도 제시하는 심판자의 권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허구적 서사물은 두 가지 구조적 차원을 갖는다. 그것은 <이야기 histoire>와 <담론 discours>으로서, 이야기 체재와 그것의 전달 방법이다. (Roger Fowler 著·金貞信 譯, Linguistics and the Novel, 文學과 知性社, 1985. pp. 103~104 참조)

11) 천상계의 두 가지 작품 구조적 성격에 대한 통합적 이해는 뒤에 고찰하기로 한다. (제 IV 장 참조)

12) Mircea Eliade 著·李東夏 譯, 「聖과 俗: 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pp. 13~15 참조. (이 책의 부록으로 실린 李東夏의 「역사의 지평과 초역사의 지평」, pp. 175~181 참조)

「명주보월빙」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이미 한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명주보월빙」에서는……신이 미리 지상적 삶에 대한 각본을 썼고, 이 각본에 따라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진행시키는, 그리하여 드디어 장엄하고도 숭고한 신의 섭리와 그 시공으로 이끌어가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교향악을 演行하는 것이다. 지상적 삶은 깊고 오묘한 神意의 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¹³⁾

천상계의 작품적 의미를 존재론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이 작품의 서두에 나타나는 神夢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일의 상서 부귀 한 숨을 어드니 동남간(東南間)으로 좃츠 오십칠운(五色彩雲)이 집을 두루고 서기(瑞氣)의 일위선관(一位仙官)이 흑(鶴)을 두고 내려와 상서 부부를 향하여 날너 왓 그더 스친성효(事親誠孝)와 성심인덕(誠心仁德)이 신명(神明)을 감동하사 귀자(貴子)를 주어 태허진군(太虛眞君)과 녕허도군(靈虛道君)을 뺌으로 윤가의 누리사 문호를 흥기(興起)케 홀 썩 아니라 송도공훈(宋朝功勳)이 되러니 일세(一世)의 희한(稀罕)허러니와 군의 쉬(數) 단(短)하여 명년이면 탄궁(天宮)의 도라올 거시오 몸이 만리타국(萬理他國)의 절명(絕命)허러니 뺌개옥동(雙個玉童)의 얼굴도 모를디라 엇디 천연(愀然)치 아니리오,……선관이 웃고 우선(羽扇)을 드러 치운을 헛치더니 문득 뺌개당룡(雙個長龍)이 빗치 각각이라,……선관 왓(曰) 황룡(黃龍)은 십오조 오녀(十五子五女)를 둘 거시오 옥룡(玉龍)이 칠조 삼녀(七子三女)를 둘 거시니……윤가의 조손이 번성허러니와 다만 사라서 이지 못허러니……선관이 탄왓, 군의 자녀 삼인이 초년(初年)은 위시의 히로버 곡경(曲境)이 비상(非常)허러니와 길흉 화복(吉凶禍福)이 다 텃딩지수(天定之數)니 흥인이 간더로 죽이지 못홀지라 군은 명년(明年)의 탄궁(天宮)의 도라오러니와 난월성은 조녀의 영효(營孝)를 불지니 붕성디통(崩城之痛)을 관억(寬抑)하고 타일을 보라, 태허진군(太虛眞君)은 인연이 여러 곳의 밍이엿고 원비(元妃)는 명주(明珠)로뻬; 빙계(聘幣)를 삼고 녕허도군(靈虛道君) 원비도 명주 넘지니 이후 삼일만의 명주를 조연(自然) 어들지니 갑히 간스헛엇다가 냥조(兩子)의 빙계를 삼으라,……숨을 썩여 서로 몽스(夢事)를 담논허니 상세 왓, 동사를 엇디 취신(取信)허리오 허나 그옥이 잉덕홀가 바라더라.

(명주보월빙 권 1, 전사 자료 제 1 권 pp. 6~7)

인용이 좀 길어진 감이 있으나 위의 인용문은 「명주보월빙」 전체의 이야기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자세히 소개했다. 송나라 진종 때의 名官인 윤 현과 그의 아내 조 부인은 어느 날 동시에 神夢을 얻는다. 꿈 속에 출현한 선관은 윤 현과 조 부인에게 하늘에 의하여 결정된 尹府의 앞날에 전개될 파란만장한 가문의

13) 李相澤, 앞의 논문, p. 122.

운명을 예언한다. 신몽에 나타난 선관의 예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윤 광천(太虛眞君), 윤 회천(靈虛道君)의 탄생.
- ② 쌍생아—광천 형제—의 비범성.
- ③ 윤 현의 요절.
- ④ 위 부인에 의한 가문의 변란¹⁴⁾
- ⑤ 尹府 자녀의 혼례지사.
- ⑥ 尹府의 가문 번성.
- ⑦ 天官으로의 회귀.

이와 같은 예언 내용이 현실적 사건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명주보월빙」의 주된 플롯이다. 방대한 분량의 「명주보월빙」이라는 이야기는 위의 꿈의 내용을 좀더 실감나고 흥미진진하게 엮어 간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작품이 외형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대하 서사물이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기본 골격은 윤 현과 조 부인의 꿈에서 볼 수 있는 바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즉, 윤씨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정·하씨의 세 가문이 혼인을 통한 姻戚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가통 찬탈을 위한 위씨의 변란을 극복하면서, 당대의 閥閥家門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가문 소설이 「명주보월빙」이다. 따라서 위의 신몽 부분은 그 방대한 분량의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 天定之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천상계가 지상계의 변천하는 현상의 根底에 있는 본질의 세계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천상계의 존재 양상은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턴경(天鏡)' 모티브에서 절정을 이룬다.

츠시 뉴 부인이 엄홀하여 계명의 니르도록 인사를 모르는 가운데 일장 신몽(神夢)을 어드니……언파의 시녀를 명하여 큰 거울을 드러 윤부를 빗최고 뉴시로 보게 하라 하시니 뉴시 엄구(嚴舅)와 존고(尊)의 말숨을 듯조오미 한출침빅(汗出沾背)하니 그 명을 기억디 못하여 턴경을 잠간 보미 윤공과 황 부인이 기세(棄世)함므로브터 조그 위시를 석와 불의를 횡하던 거동이며 창후 형태를 치고 조로던 형상과 의렬을 서르져 놓의 너허 형봉을 주던 모양이며……거동이 오히려 조그라도 니준 일이 잇거늘 턴경의는 완연하여……

(명주보월빙 권 73, 전사 자료 제 4 권 pp. 251~252)

14) 위 부인은 윤 현의 계모로서 자신의 소생으로 가문의 중흥을 있게 하려고 윤 현과 광천 형제를 없애려는 사악한 인물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天鏡은 유 부인의¹⁵⁾ 꿈에 나오는 천상계의 秘器로서,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속에서 재현된다. 유 부인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댓가로, 하늘이 내린 怪疾 때문에 지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경을 헤메다가 신몽을 경험한다. 그녀는 閻羅殿에 끌려가 鬼錄에 적힌 자신의 악행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녀에게 내려질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악행을 자행한 신모랑, 세월, 비영 등이 당하고 있는 형벌의 고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던 중, 희천의 지극한 정성으로 명을 보존하게 된 유 부인은, 이미 죽은 시부모에게 불러가서 천경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 천경에 나타난 유 부인이 저지른 악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조 부인의 소생인 광천 형제에 대한 박해.
- ② 윤 현아를 김 중관과 억지로 결혼시키려는 흉계.
- ③ 시집에서 친정으로 온 명아 소저를 처참하게 살해.
- ④ 尹府의 며느리들인 정·진·화·장 등 四小姐에 대한 잔혹 행위.

유 부인은 후처인 위 부인의 며느리라는 신분적 불이익을 거부하려 한다. 그녀는 자신의 소생이 아닌 광천 형제와 그들의 아내인 정·진·화·장 四小姐, 광천 형제의 생모인 조 부인, 조 부인의 딸인 윤 명아 등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봉건적 가족 제도에서 기인하는 신분적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그녀의 행위는 모두 실패로 끝난다. 뿐만 아니라, 천상의 비기인 천경 속에 그녀의 악행이 하나도 남김없이 비쳐지고 있었다. 이 천경에 비친 유 부인의 악행은 “지상적 시공이 한 날 천경이라는 천상의 비기에서 한 발자욱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어이없는 유한성과 숙명성을 보여 주면서”,¹⁶⁾ 천상계가 지상계의 현실적 힘의 논리를 극복하는 도덕적 당위성에 의한 사필귀정의 이상 세계로서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상계는 내용 구조의 차원에서 그것이 갖는 작품적 의의를 고찰해 보면, “실재의 비릇함으로 그 실재의 규범적 가치의 원천으로 그리고 삶을 위한 준거의 틀로 기능하는”¹⁷⁾ 존재론적(ontological) 의미를 갖는다.

15) 유 부인은 윤 현의 異腹同生인 윤 수의 아내로서 위 부인을 도와 尹府의 처절한 가내 변란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16) 李相澤, 앞의 논문, p. 106.

17) M.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Meridian Books, 1968), pp. 38~41 참조. 鄭鎮弘, 「韓國宗教文化的 展開」, 集文堂, 1986, p. 21 재인용.

2. 수사적 의미

천상계가 지상계의 존재론적 근거라는 생각이 이 작품 구성의 대전제가 되고 있기는 하나¹⁸⁾, 과연 그것만이 작가의 궁극적 관심사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명주보월빙」은 작품에 흐르는 분위기가 ‘비세속적이고 천상적인 외경감으로 충만해’¹⁹⁾ 있으므로, 신화적 인식론과 삶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작품 전체를 통독하면, 이 소설이 대단히 보수적이면서 현세적 욕망에 대한 작가의 관심 또한 대단히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천상계가 갖고 있는 신성성이나 거룩함과 그와는 대극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욕망 추구의 모습이 동시에 작품에 나타나므로, 어느 것이 진짜 작가의 관심사인지 알기가 어렵게 된다.

그런데 작가 의식의 초점이 천상계라는 신성 공간보다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삶의 양상에 놓여 있다면, 천상계를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이해한 지금까지의 시각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명주보월빙」이라는 작품 세계를 작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서사 소통의 방법론으로 천상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은 ‘담론 구조’²⁰⁾의 차원에서 천상계를 이해하려는 시각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천상계에 대한 수사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주보월빙」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에 있어서 외모의 우열을 보려면, 빼어난 외모와 덕행이, 추악한 외모와 악행이 서로 상관 관계를 이룬다.

① 지설 덩공조 텃홍의 년이 십삼의 니르니 풍류(風流) 수려동탕(秀麗動蕩)하여
농미봉안(龍眉鳳眼)과 호비주순(虎鼻朱唇)이 출뉴발채(出類拔萃)하고……
(명주보월빙 권 3, 전사 자료 제 1 권 p. 72)

② 방이……감격훈 듯 횡공훈 듯 정신이 취하니 오딕 웃는 입을 버리고 거문 낫
치 더러운 나룻술 어로만지며……
(명주보월빙 권 4, 전사 자료 제 1 권 p. 100)

①은 윤 명아의 남편으로서 영웅 호걸의 기상을 지니고 있으며 초인간적인 힘으로 위기에 빠진 주역 인물들을 구출하는 정 천홍의 외모를 묘사한 것이고, ②는 윤

18) 앞의 ‘신몽’에 대한 논의 참조.

19) 李相澤, “古典小說의 社會와 人間”, 金烈圭 等 編, 「古典文學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76, p. 275.

20) 주 10) 참조.

명아를 납치하여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는 악한 위 방에 대한 외모 묘사이다. 이것은 용모의 미추에 대한 판별이 심성의 선악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인데,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인물 묘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인물의 선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 묘사 방법이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천상계라는 소설의 수사학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불합리한 것을 작품 내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합리성의 기준을 초월하는 절대적 권위를 필요로 한다. 천상계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 요소이다.

「명주보월빙」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광천 형제, 정 천홍, 윤 명아, 정·진·하·장 4소저, 조 부인, 하 원광 등의 주역 인물군은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일관하여 방어적 행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행동력을 보여 주는 것은 악인형 인물들이다. 개인적 욕구의 실현을 위하여 시대 질서에 도전하는 악역 인물군은 집요하고 잔인하게 변란을 저지른다. 그들이 저지르는 변란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위 부인, 유 부인—가문의 종통을 찬탈하기 위한 변란.
- 유 교아, 성 난화, 문양 공주—남편의 애정을 독점하기 위한 변란.
- 구 몽숙, 위 방—미인을 얻기위한 변란.
- 신묘랑, 묘화—요사스러운 술법을 이용하여 일으키는 변란.

위에 예시한 악인형 인물들의 변란에 대처하는 주역 인물군, 특히 윤 광천, 윤 희천, 윤 명아 등의 행동은 그들이 正人君子이기 때문에 邪不犯正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사태에 임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들은 아무런 자구책도 없이 오직 사필귀정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처럼, 악의 인물군의 강한 행동력과 그로 인한 선의 인물군의 처절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궁극적 승패의 결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현실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이 부자연스러운 결말을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작품 내적 근거 역시 천상계이다. 천상계는 도덕적 당위의 세계이고 지상 존재의 고향이면서, 수사적으로는 사건 진행과 결말 처리의 타당성을 작품의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보장해 주는 연역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명주보월빙」이라는 작품의 실상은 현세적인 욕망의 충족이 소위 권선징악이라는 도덕적 당위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

다.²¹⁾ 그러나 18·19 세기의 사회는 도덕적 규범에 입각한 인물이 반드시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당시는 조선 왕조의 윤리 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화폐 경제 시대의 가치관이 서서히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때였다.²²⁾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기존 윤리에 충실한 보수적 선이 승리하게 하는 「명주보월빙」의 사건 설정은 “현실적 논리인 악의 승리가 이상적 논리인 선의 승리로 극복된다”²³⁾는 작품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 전개 방식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현실적으로는 관념적이며 이상적인 선의 승리를 작품 속에서 실제화하고 객관화시키는 초경험적인 원리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예를 든 인물 묘사의 불합리성과 도덕적 당위성에 의한 사건 처리는, 근대적인 사실주의적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하면 작품의 결함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 구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그럴듯함(Plausibility)’²⁴⁾이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인과의 논리에 지배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의 문화 감응(感應)이, 천상계와 같은 초현실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신성 문화의 양상을 띠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천상계는 어느 정도 신성 규범을 소지한 조선 왕조의 독자를 상대로, 서사물 전달의 방법론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명주보월빙」에 나타나는 천상계는 두 가지 작품 구조적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내용 구조의 측면에서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서사체 전달 구조의 측면에서 수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후자의 수사적 의미 체계 안에서 천상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관심사이다. 수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천상계는, 존재론적 의미의 천상계가 상징하는 신성 환경, 초역사적 실재, 신비적인 세계관 등이 그 자체로서 작가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 현실 감각적인 지상계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21) 朴逸勇, “영웅소설 유형변이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저, 「近代文學의 形成過程」, 문학과 지성사, 1983, pp. 187~206 참조.

22) 이러한 사회사적 변동 양상은 조선 후기의 낙선재본 단행 소설에 대한 정 병욱 교수의 분석에 잘 나타나 있다.

정 병욱, “조선조 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낙선재본 소설의 몇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고전의 재인식」, 弘盛社, 1979, pp. 178~192 참조.

23) 윤성근, “유충열선 연구: 대립과 갈등의 측면에서 본 선악관”, 「常山李在秀博士還曆紀念論文集」, 형설출판사, 1972, p. 386.

24) WILLIAM KENNY, 「How to Analyze Fiction」, Monarch Press, 1966, pp. 19~20. of the laws governing plot in fic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certainly the law of plausibility.

위한 소설 수사학적 트릭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천상계의 수사적 기능을 좀더 자세하게 고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술의 국면과 천상계를 연결하는 논의를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III. 천상계의 수사적 기능

1. 문학적 관례와 천상계

기술된 텍스트가 이해되려면 텍스트 내부에 독자로 하여금 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해성(可解性)의 요소가 요구된다.²⁵⁾ 왜냐하면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그 텍스트가 읽혀지지 않는다면 텍스트의 존재의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역시 서사적 자아인 서술자가 작품 세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수사적 방법론에 속한다. 텍스트의 가해성을 높이려면 독자에게 친숙한 규약이나 틀이나 형태(Gestalt)와 같은 문학적 관례(Literary Convention)를 재활용할 수 있다.²⁶⁾ 텍스트와 기존의 문학적 관례를 일치시키는 것을 콜러는 <자연화—naturalization>라고 이름을 붙였다.²⁷⁾

조선 시대의 독자들은 현대의 독자와 같은 세련되고 수준이 높은 독서 체험을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조선 왕조에 있어서 소설은 유학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비난과 배격의 대상이었다. 소설, 특히 국문 소설은 이러한 유학자들의 비난과 압력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²⁸⁾ 이런 상태에서 이 시대의 독자로 하여금 허구적 서사물을 쉽게 읽도록 하려면 너무 지나치게 독창적인 새로운 작품보다는, 그 당시까지의 누적된 문화 체험에 의하여 친숙해진 천상계라는 공간성을 소설 텍스트의 가해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소설 창작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천상계는 문학적 관례로 정착되고, 이를 개별 작품에 자연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났다.²⁹⁾

실제로, 우리의 고전 소설을 개관해 볼 때, 천상계가 소설 공간으로서 전혀 설

25) Shlomith Rimmon-Kenan 著·崔翔圭 譯, 「小説의 詩學」, 문학과 지성사, pp. 178~179.

26) M.H. ABRAMS(崔翔圭 譯)의 앞의 책, p. 311.

27) 자연화란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른 종류의 문학적 관례나 비문학적인 소통에 있어서, 기호나 의미화 작용이 기능을 하는 방식, 또는 우세한 문화적 고정유형과 일치됨으로써, 자연스럽고 逼真性이 있게 보임을 의미한다.

28)李文奎, “國文小說에 대한 儒學者의 批評意識”, 한국학보 제31집, 一志社, 1983, 여름호, pp. 30~55참조/윤성근, “유학자의 소설 배격”, (詩文學 25, 한국어문학회, 1971)

29) 현대 소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관례라기보다 독창성이 결여된 인습적 길목이겠으나, 서사 소통을 둘러싼 문화 환경이 다른 고전 소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³⁰⁾ 이것은 그만큼 천상계가 강한 형식적 구속력을 행사하면서, 우리 고전 소설의 내용 전개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명주보월빙」에 등장하는 천상계 역시 문학적 관례로서 작품의 가해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 천상계의 초역사적 측면이나 작중 인물들에게 외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작자가 「명주보월빙」이라는 허구의 세계를 독자에게 보내는 서사 소통의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이다. 가문 소설이라고 불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욕망과 갈등의 체계가 천상계라는 초현실적 감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은, 「구운몽」과 같은 작품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오랜 고전 소설의 문학적 관례이다.³¹⁾

천상계를 문학적 관례로서 이해하는 것은 천상계를 존재론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작품화 원리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보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천상계가 작품의 가해성을 상승시키는 문학적 관례라고 했을 때, 이 가해성 상승의 측면은 서사물 전달의 체계인 담론 구조와 연결된다. 왜냐하면 작품의 가해성은 내용 문제라기보다는 작자와 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서사적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문학적 관례인 천상계가 어떻게 작품의 가해성을 상승시키면서 소설 수사학에 공헌하는지를 「명주보월빙」의 여러 국면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 작품의 비현실성과 천상계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에서 찾기 힘든 비현실적 내용을 많이 지니고 있다. 현대 소설을 분석하는 눈으로 보면 이것은 황당무계하므로 소설 구성상의 약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 배경과 사회적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단견이다. 고전 소설의 비현실성은 주로 도술 사용과 같은 환상적이고 초경험적인 작품 내용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문학사의 전개가 문화 변동 내지는 사회 변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전제 아래, 한국 고전 소설을 '신성 소설'과 '세속 소설'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신성 소설에 속하는 고전 소설 작품들은 작품의 주제에 있어서

30) 이 글과 관점은 다르나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천상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논문이 있다. (李能雨, “古小說에서 보여지는 民間 하늘(天)觀”, 「古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73, pp. 330~337 참조)

31) 구운몽은 현실적 출세주의와 함께 인간의 종교적 구원의 문제를 초현실적 감각으로 다루고 있다. (설 성경, “고소설의 흐름과 형태”, 설 성경·박 태상 공저,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p. 15)

대개 神仙, 道術, 異人(異僧), 報應, 定數, 靈異(神異), 變身, 再生, 言穢 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³²⁾ 이 연구가 제시하는 신성과 세속이라는 2원적 분류 원칙의 타당성은 논의로 한다고 해도, 신성 소설이 보여 주는 고전 소설의 비현실성을 작품의 결점으로 보지 않고, 조선 왕조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결지어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위의 견해를 따른다면 「명주보월빙」은 작품 세계의 비현실성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신성 소설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낙선재본 단행 소설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조선 후기 사회는 세계관이나 존재론의 측면에서 볼 때 천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질서 체계에 대한 관심이 문화의 중심 역할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었다.³³⁾ 따라서 천상계가 인간의 보편이나 절대, 무한에의 욕구를 형이상학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명주보월빙」에 설정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³⁴⁾ 문학이 사회의 반영이라는 평범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필자는 「명주보월빙」의 비현실적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사회·문화적 含義보다는 천상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수사적 의미 체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명주보월빙」의 비현실적 모티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신 모티브와 요약 사용의 모티브를 천상계와 연결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1 변신

…… 실등의 도라와 덩히 취침코져 허더니 문득 음풍이 소귀허며 비운이 참참허더니
 허 괴이허 증심이 창을 열치고 다라드니 크기는 큰기 만하고 호표의 모양이로되
 나리 있논디라……

(명주보월빙 권 30, 전사 자료 제 2 권 p. 214)

인용문의 내용은 정 천홍의 제 2 부인인 양 부인이 문양 공주의³⁵⁾ 讒告로 천정으로 돌아가 있을 때 발생한 일이다. 크기는 개 만하고 등에는 날개가 달린 호표처럼 생긴 괴수에 의하여 양 부인이 잡혀가는 장면인데, 이 때의 날개 달린 괴수는 다름 아닌 신묘량의 변신이었다. 신묘량은 천 년 묵은 여우로서 「명주보월빙」에

32) 李相澤, “古代小說의 世俗化過程 試論”, 李相澤·成賢慶 編,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사, 1983, pp. 68~87참조.

33) 정 병욱, 앞의 논문, pp. 178~192.

34) 「명주보월빙」에 대한 이 상택의 논문, 주 6).

35) 황명에 의하여 정 천홍과 결혼한 공주로서 대단히 질투심이 강하고 사악하여 정 천홍의 세 부인을 제거하기에 혈안이 된다.

나오는 악역 인물군인 위 부인, 유 부인, 문양 공주 등을 도와 온갖 변란을 일으키는 요사스러운 존재이다.

광턴 등을 죽이려 하니 문득 낭공주는 보지 못하고 상상(床上)의 황룡과 백룡이 서광을 쬐어 누웠는데……낭공을 주로 보더니 홀연 두 능이 움직여 옷술 넘으려 하는 거슬 보니 문득 변하여 광턴과 회턴이라……몽숙이 변화하여 날짐성이 되고져 하여 몸을 흔들거늘……

위의 인용문은 윤 수의 아내인 유 부인이 가문의 중통을 빼앗으려고, 자신의 소생이 아닌 광천과 회천을 조카인 구 몽숙을 시켜 살해하려는 순간을 보여 주고 있다. 구 몽숙이 광천 형제의 침소를 습격했을 때 침상 위에는 황룡과 백룡이 누워 있을 뿐이었다. 이 황룡과 백룡이 바로 광천 형제의 변신이다. 윤 광천과 윤 회천은 천상의 星神인 태허진군과 영허도군의 환생으로서, 전쟁 영웅이며 도덕적 성자의 화신과 같은 존재들이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변신 모티브 중에서 전자는 부정적이고 사악한 변신 관념이고, 후자는 긍정적이고 신성성을 띤 변신 관념이다. 변신에 있어서도 도덕적 평가에 의한 가치 판단의 요소가 천상적 인과율에 의해 제시된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성	도덕성	변신주체	변신대상	가치판단
天	善	광천 형제	서광을 띤 황룡·백룡	긍정
地	惡	구몽숙 묘랑	날개가 달린 괴이한 짐승	부정

이는 변신 주체와 변신 대상의 연결의 내적 필연성이 천상계에 의해 이미 선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천상계가 갖는 규범적 가치의 속성이 변신 모티브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변신 모티브의 원초적 사유는,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변화의 과정에 대해 인간이 강한 흥미를 지니고 있는 것에, 그 기저를 두고 있다. 이 변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 현상적 삶의 영역을 타파하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돌파구를 찾는다. 이것은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질곡에서의 탈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하면 변신 모티브는 인간에게 정신적 해방감과 활력소를 제공하는 셈이다.³⁶⁾

36) 金美蘭, 「古代小説과 變身」, 正音文化社, 1984, p. 32.

그러나 변신 모티브는 허구의 세계를 떠난 일상성의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비합리적이며 현실성이 희박하므로, 작품화 과정에서 그것이 독자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고 작품 내적 현실감이 성립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천상계가 바로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천상계가 작품 전체에 걸쳐 초현실적 감각의 근원적 충동을 이미 확립시키고 있었으므로, 변신 모티브가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조선 왕조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천상계는 자연 과학적 성찰의 대상으로서보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규범의 상징이며, 일상 생활을 초월하려는 근원적 충동을 해소시켜 주는 존재로서 더 큰 의의를 지녔다. 이러한 천상계가 작품의 한 요소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변신 모티브를 독자가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사체 전달의 구조적 기능을 하게 된다.

2.2 요약 사용

「명주보월빙」에는 주역 인물들에 대한 적대자들이 신묘랑과 같은 요물의 지휘나 도움을 받아 변란을 꾸밀 때 흔히 사용하는 수법 중에, 요사스러운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 약들은 아플 때 먹고서 병이 낫는 치료약이 아니라, 악역 인물군이 악행을 자행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暗藥이다.

디성이 감탄이라 부인이 불도의 정성을 드러 제시니 엇디 필경 회시 업소리잇고. 인하여 품 스이로죽초 약봉을 니니 요약이 무슈하여 변심하는 익봉잠과 변용하는 기용간(改容丹)과 죽스하는 촉명단(促命丹)과 오릭 신음하여 장뵈(臟腑) 스러지고 늑탁이 솟쳐져 슈월 후의 죽는 절명단(絶命丹)과 말 못하는 암약과 인스 흐리는 현혼단(眩暈丹)과 그밖 요약이 불가승슈(不可勝數)라……

(명주보월빙 권 80, 전사 자료 제 1권 p. 434)

여기에 나타난 요약의 종류를 열거하면 익봉잠, 개용단(改容丹), 촉명단(促命丹), 절명단(絶命丹) 말 못하게 하는 암약, 현혼단(眩暈丹) 등이다. 개용단은 얼굴의 모양을 바꾸는 약이요, 촉명단과 절명단은 생명을 재촉하는 약이요, 현혼단은 복용 즉시 인사불성이 되는 약이다. 익봉잠은 복용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총애하던 사람을 중오하고, 중오하던 사람을 총애하게 만드는 약이다. 이러한 약들을 사용하여 악역 인물군은 주역 인물군에 속하는 여주인공과 그들의 幼兒를 납치하고, 주인공이 계모나 숙부를 살해하려 했다는 綱常大罪의 누명을 씌우는 등의 갖가지 변란을 자행한다.

이러한 요약 사용의 사건담은 현실 세계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가능성이 희박

한 것이다. 현대의 독자는 물론이러니와 조선 왕조의 소설 독자들에게 있어서도, 작품 세계를 떠난 입장에서 요약의 존립 근거를 믿기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개용단이나 익봉잠 등이 엄연한 실체로 독자에게 다가오려면 독자는 보월빙의 서술자에 의존해야 한다. 이 “서술자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규칙을 다시 만든다.” 요약 사용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명주보월빙」이라는 “제공된 세계에 살기를 거부하고, 그곳을 벗어나 우리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때이다.”³⁷⁾

천상계는 요약 사용이 작품 내부의 입장에서 엄연한 현실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사학에 공헌한다. 천상계는 작품의 한계를 떠나 있어도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지고한 것, 광대무변한 것, 변화무쌍한 것, 닿을 길 없는 초월, 모든 힘의 근원’ 등으로 기능하고 있었다.³⁸⁾ 물론 하늘 경험이 의식의 차원에서 종교적인 이념화나 논리화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에는 의문이 남지만, 적어도 조선 왕조의 독자들이라면 하늘은 ‘초월’이고 ‘신성한’ 것이고 ‘중극적’인 것으로서, 신다음과 성스러움과 힘의 분출로 경험될 가능성을 그들의 정신 세계 속에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천상계의 신성 문화적인 초월 감각이 개용단, 현혼단 등의 작품 내적 개연성을 상승시키면서, 독자의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독서 행위를 차단시킨다. 천상적 서술 감각은 문화의 초역사적 신성성에서 말미암은 하늘의 절대적 위력을 잠재적으로 활용하여, 독자의 작품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봉쇄한다.

결국, 천상계는 「명주보월빙」에서 초현실적·초경험적 문화 感應의 기저 규칙으로서 작품 이해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변신 모티브나 요약 사용의 사건담과 같은 비현실적 요소가 작품 내부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옹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대 산업 사회의 합리성에 근거한 현실 원리와는 다른 원리가 「명주보월빙」의 함축적 통어력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주보월빙」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독자의 조건은 이러한 초현실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바람직한 독자의 조건이 거부되거나 무시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작품 세계의 원리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원리를 주장한 것이 되므로, 작품을 읽고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명주보월빙」이 감상되던 조선 후기의 독자들은, 현실 세계의 문화 감응이 현대 산업 사회의 그것보다 「명주보월빙」이라는 허구 속에 근접해

37) Gillian Beer 著·文祐相 譯, *The Romance*,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 11.

38) 鄭鎮弘, 앞의 책, p. 20.

있었으므로, 작품 세계의 비현실성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서술 양상과 천상계

고전 소설의 서술 양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극적 제시보다 서술자의 직접 설명이나 논평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른바 미메시스와 디에제시스의 구별 중에서, 서술자 자신의 진술인 디에제시스에 충실한 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문어체 국문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어서, 마치 한 장 한 장의 움직이지 않는 슬라이드 사진을 비치면서 설명하는 해설자에 비길 수 있을 정도로³⁹⁾, 서술자의 서술 의식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술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성격을 갖는다. 가치에 대한 중립적 태도, 등장 인물에 대한 태도의 공정성, 작품 세계에 대한 냉담하고 무감각한 감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⁴⁰⁾ 현대 소설의 일반적 지향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드러낸다. 이처럼 서술자가 작품 세계에 개입하는 것은 객관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작품의 결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천상계의 수사적 기능을 중시하면서 작품의 여러 가지 서술 양상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작품 이해의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1 내포 규범

허구적 서사물의 여러 국면 중에서, '텍스트의 규범(the norms of the text)'이라고 불리우는 국면이 있다. 작품 전체의 지배적 의식이며 스토리의 사건과 각종 인물들이 이 규범에 의해서 평가된다.⁴¹⁾ 웨인 부우드는 소설에 대한 수사학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포 작자'(함축된 작자 implied author)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⁴²⁾ 이 견해에 따르면 내포 작자는 작품 전체의 지배적 의식이며, 작품 속에 구체화된 규범의 연원이다. 실제의 생물학적인 작자—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실제의 소설가—와 구별되는 그 작품 속에서만 존재하는 작자이며, 작품 내의 평가적 시각을 통제하는 것이 내포 작가이다. 그리고 시점의 개념 중에서 '관념적 시점'(ideological viewpoint)은 작품 속에 재현된 목적물을 향한 태도나 견해를 의미하

39) 金炳國, 앞의 논문, p. 92, p. 108.

40) WAYNE C.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pp. 67~83 참조.

41) Shlomith Rimmon-Kenan 著·崔翺圭 譯, 앞의 책, p. 123.

42) Wayne C. Booth, 앞의 책, pp. 71~76 참조.

는 것으로서 서술자의 목소리를 함축하고 있다.⁴³⁾

위에서 열거한 개념들의 기저에 흐르는 기본 원리는 어떤 소설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 문학 비평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자(Persona), 어조, 목소리와 같은 용어들은 문학 작품을 하나의 발화로 생각한다. 이것은 결정적인 개인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작품 중의 작중 인물이나 내용에 대한 태도와, 그 작품의 전달 대상인 독자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발언자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발언자가 가치 기준이나 신념이나 도덕적 비전에 대하여 한 작품 전체를 일관하는 함축적 통어력으로 기능하면서 독자의 반응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이와 같은 소설 작품의 발화적 성격은 고전 소설의 경우 아주 명백하다. 고전 소설의 서술자는 윤리적 논평자로서 主權的인 기능이 현저하다는 논의는⁴⁴⁾ 등장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표면화하면서, 작품 세계를 파악하는 가치 기준이나 평가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고전 소설 작품에 나오는 규범적·평가적 시각은 분명히 천상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⁴⁵⁾ 人欲을 부정하고 天理를 강조하는 것은 고전 소설의 중심 테마인 것이다.

이와 같이 천상계는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천상계가 작품의 '내포 규범'⁴⁶⁾이라는 생각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것은 작품 세계에 대하여 개인을 초월한 사회 공동체의 여러 가치와 사고 유형을 작품에 확산시키는 문화 가치의 저장고이며, 신성 문화의 감각을 동반하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작품 세계에 대한 서술자의 개입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독자에게 설득력과 공감력을 갖는다. 이 점은 「명주보월빙」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면 천상계가 「명주보월빙」의 내포 규범으로서 수사적 연역 원리임을 전제로 하면서, 「명주보월빙」에 나타나는 인물 구성을 살피기로 한다.

3. 2 인물 구성

서사적 작품에서는 인물 구성을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눈다. 제시(showing)와 설명(telling)의 방식이 그것이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전자보다 후자에 의한 방법이 훨씬 많이 쓰인다. 이 설명—직접 한정—의 방법은 서술자가 자신

43) Roger Fowler 著·金貞信 譯, 언어학과 소설, 문학과 지성사, 1985, pp. 99~100.

44) 李在統, 「韓國短篇小說研究」, 一志社, 1976, p. 66.

45) 천상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앞의 논의 참조.

46) S.리몬—케넌 저·최 상규 역, 앞의 책, pp. 129~133 참조.

의 입장에서 직접 작중 인물의 행위 동기나 기질적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때로는 평가를 위해 작품 세계에 개입한다.⁴⁷⁾

…… 원간 탄성이 디독 간휴은 아니라 인연이 괴과하여 덩병부를 만니의 쌀오미
썩 흥 운영의 작용 썩 아니라 귀신의 식이미나 본국을 칭각지 아니며 부모를 스통치
아니니 진짚 이적(夷狄)의 무리로 다르미 업더라. (가선 필자)

(명주보월빙 권29, 전사 자료 제2권 p. 179)

이것은 「명주보월빙」의 주역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정 천홍이 운남 出征을 끝내고 돌아올 때, 정 천홍을 사모하여 몰래 그를 뒤쫓아온 운남 왕녀 운영에 대한 인물 구성이다. 본국과 부모를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만을 추구하는 운영에 대하여, 서술자는 역시 오랑캐라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중 인물의 특성을 지목하는 방식은 텍스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를 통해 말해질 때 효과가 있다. 만약 운영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서술자가 아닌 다른 등장 인물을 통해서 나왔다면, 독자로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 이 반드시 태휘(胎候) 안온하여 순삭후(旬朔後) 분산홀 거시로더 조물이 희
를 더어 공주의 너모 교오주존(驕傲自尊)을 오지(惡之)호거니 엇지 복등골육(腹中骨
肉)을 무스히 생산호리오…… (가선 필자)

(명주보월빙 권 29, 전사 자료 제2권 p. 179).

읽자는 정 천홍의 제4 부인인 문양 공주의 교만함과, 그로 인하여 조물주가 공주의 출산을 방해할 것이라는 서술자의 개입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서술자의 판단을 천상계를 암시하는 '조물'이 보증해 주고 있다. 물론 천상계가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서술자에 의한 등장 인물에 대한 직접 한정은, 신빙성이 있으며 명백하고 超俗的이라는 점이 문학적 관례로 인정된다.⁴⁸⁾ 그러나 「명주보월빙」의 작자는 더욱 나아가서, 천상계를 서술자에 의한 인물 구성의 확실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 절대적 권위와 힘을 소지한 천상적 신비로움이 인물 구성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 식험패악(猜險悖惡)호여 상서(운현-필자)를 괴출(己出)이 아니라 호여 일호
주이(慈愛) 업고…… 것츠로 주모(慈母)의 도를 일치 아니니 조부인의……어질물 아
쳐호여 누시로 동심(同心)호여 종통(宗統)을 앓고져 호는지라……(가선 필자)

47) M.H. ABRAMS의 앞의 책, p. 34.

48) S. 리몬-페넌 저·최 상규 역, 앞의 책, p. 94.

…… 애용(愛容)이 절세(絕世)하니 성도(性度) 초강(超強)하고 은악양선(隱惡仗善)하며 투현질능(妬賢疾能)하고……(가선 필자)
(명주보월빙 권 1, 전사 자료 제 1 권 pp. 3~4)

운 현의 계모이자 광천 형제의 계조모인 위 부인과 운 수의 아내 유 부인에 대한 인물 구성이다. 겉으로는 지극히 선량한 체 하면서도 마음 속에는 시기심과 질투, 음험함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 위 부인과 유 부인이다. 작가는 이들의 사악함을 보다 선명하게 하려고, 상황에 따라서 아예 이들에 대한 호칭 자체를 '위뿔, 유뿔'으로 표현하여 단정적인 평가를 서슴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은 「명주보월빙」의 서두 부분에 나오는데, 위 부인과 유 부인은 아직 아무 행동이나 대화도 하기 이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시된 두 인물에 대한 성격적 특성이나 도덕적 평가가 조금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인물에 대한 선악 판단의 규범적 근거로서 천상계가 서술자의 바로 뒤에서 함축적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천상계에 근거한 서술 감각이 인물 구성의 내포 규범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허구적 서사물에서 외양(external appearance)은 인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 외양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물의 신체적 특징으로서 그 인물 자신의 능력으로는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장이나 헤어 스타일처럼 인물 자신의 의지에 의해 바꿀 수 있는 것이다.⁴⁹⁾ 「명주보월빙」은 이러한 인물의 외양을 통한 인물 구성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資意의 변화가 불가능한 신체 특징을 통한 인물 구성은 이 소설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㉔ 쇼제 일개 옥동을 칭하니…… 테형(體形)이 석대하여 산천슈기와 일월정화를 오로지 거두어 골격이 비상하니 너른바 단산(丹山)의 유봉(幼鳳)이오 교야(郊野)의 기린이라……

㉕ '하날이……성인을 강세(降世)하여 탁세를 뉘히시니 이 엇디 홀노 운문 천니 기린(麒麟) 쏜이리오……명상보좌(名相補佐)의 낭신이 될 디라.
(명주보월빙 권 31, 전사 자료 제 2 권 p. 227)

㉖ 하 원광이니…… 풍광이 동인하여 강산의 출뉴훈 정귀오 너른 텃정은 망월이 두렷함미오 설빈은 빅년을 쏜조고 단스주손은 혈기 방광하니 신장이 팔척 오촌이오 원비(猿臂) 과슬(過膝) 하며……

49) S. 리본-캐넌, 앞의 책 (최 상규 역), pp.100~102 참조.

㉞' 대인 괴상이오 당부위풍이라 제세안민지지는 흉등의 품엇고 늙흔 격묘와 섣허
난 신치 세디 독보하니 경운화풍지상과 태산암암지용이며 군자대현의 틀을 가져

.....

(명주보월빙 권 34, 전사 자료 제 2 권 p. 283)

㉟ 신성아를 나하여 어로만져 보니 작인의 녁형기이(英形奇異) 함미 강산의 슈출
(秀出) 흥 정기와 일월의 광치를 오로디 타나시니 상모의 비범특이함과 구각(軀殼)의
석대(碩大) 함미 신성 유오 좃터리오.....

㉡' 완연이 대인 괴상과 존귀홀 골격이 드러나니.....

(명주보월빙 권 54, 전사 자료 제 3 권 p. 275)

위에서 ㉞, ㉟는 尹府와 河府의 신생아에 대한 외양 묘사이며, ㉡는 하 원광이 과거
에 장원 급제하여 황제의 앞으로 나오는 순간의 외양 묘사이다. 신체적 특징에 대
한 언급은 모두 범상함에서 벗어나, 체구가 크고 용모가 뚜렷한 윤곽을 지니고 있
다. 그런데, 이 선천적 외양에 대한 묘사는 묘사 자체의 사실성보다는, 인물의 비
범성을 강조하는 인물 구성을 지향하고 있다. ㉞', ㉟', ㉡'는 ㉞, ㉟, ㉡에서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의 특출함이, 그대로 전인적인 차원에서 탁월한 인물로 이어짐을
서술자의 직접 한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갓 태어난 幼兒의 외양을 보고, '聖人'
으로 단정하고 '大人'의 기상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불합리다. 여
기에는 아무런 인과의 논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신적인 특성을 지닌 서
사 문학이라면 이러한 불합리가 극복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학에 있어, "나레이
터(서술자)는 신이나 至高한 존재자들이 얌의 힘을 불어넣어 준 인물"이기 때문이
다.⁵⁰⁾ 천상계가 「명주보월빙」의 작품 세계 내에서, 초현실적 문화 감각과 신성 환
경을 제공한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이다. 그러므로 천상계의 입장에 선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는 인물 구성의 확실성을 보증한다. 내포 규범으로서 천상
계가 갖고 있는 작품 세계에 대한 함축적 통어력으로 말미암아, 현실적 모순과 불
합리가 문학적으로 극복되는 것이다.

인물 구성에 나타나는 천상계의 영향력은 현대 소설에 있어서 한 인물의 구성을
할 때 작가가 소모하는 노력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경제적이면서 간편한 방법이라
고 생각된다. 이 인물 구성에 있어서의 경제성이나 간편함이 가능할 수 있게된 근
거는 천상계가 부여한 서술자의 권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서술자의 권위를 좀

50) 롤랑 부르뇌프/레알 엘레 공저·金華榮 譯述, 「소설의 세계」, 文學思想 1986년 6월호,
pp. 369~370.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3 서술자의 권위

「명주보월빙」은 다른 고전 소설 작품과 마찬가지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이 때, 서술자가 작중 인물들에 대한 논평, 그들의 행동이나 동기를 평가하고, 인생 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이 전지적 서술자의 보고나 판단이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작품 내의 사실을 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려면, 서술의 전지성을 보장해 주는 천상계의 존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작품 세계에 대한 천상계의 개입이 모든 경우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명주보월빙」을 통어하는 구조적 원리로서 작품의 구석구석에 그것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지적 자세를 취하여도 독자는 조금도 저항감이 없이 이를 받아들인다. 특히, 「명주보월빙」이 감상되던 시대의 독자들은 독서 체험에 있어서, 현대의 독자들처럼 암시나 미정 상태를 좋아하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만한 문학적 단계를 경험하지 못 했다. 그들은 그저 서술자의 일방적 논평이나 감상적 개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으므로,⁵¹⁾ 이들 독자들에게 대한 서술적 권위로서 천상계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절대성, 무한함, 종교적 외경심을, 서사 소통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 사회의 인간들에게 하늘만큼 가장 보편적이면서 위력이 있는 존재는 달리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논리 전개를 생명으로 했던 유교의 理氣哲學조차도, 인식 논리의 출발점을 天에서 시작했다는 것만 보아도⁵²⁾ 하늘이 우리 선인들에게 있어서 차지했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신부 상교(上轎) 허미 봉교상마(奉敎上馬) 허여 본부의 도라와 청중의서 합승 교비(交拜)를 파향고 금죽선(金竹扇)을 반개(半開) 허니 어시 투모(儂目)으로 신부를 보

51) 소설 낭독을 듣다가 주인공이 실의한 대목에 이르러 흥분한 사람이 칼로 낭독자를 살해했다는 문헌 기록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것은 작품 세계에 대하여 현실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속에 몰입되었음을 말하는데 허구에 대한 초보단계의 체험 양상이다.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7, p. 407)

52) 鄭鎮弘, 앞의 책, p. 38.
“유교의 유교다운은 이 하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거나, 그것을 신비적 합일로 내재화한다거나, 의식의 표층에서는 경험하지 않는 본질로 암묵적인 승인만을 해두고 있다든가, 현실적 「힘」의 기능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인간과 사물에 작용하면서 그 근원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의 논리로 전개한다는 데 있다.”

민 흰 낮춘 니화(梨花) 춘우(春雨)를 마신 듯 쌍함(雙臉)이 도화갸고 입순이 함홍(含紅)하나 추월아미(初月峨眉)의 살기 등등하여 음잡함이 가득하고 쌍안의 독사의 모질물 겹하고 면모의 불길지기(不吉之氣) 어리어 선종(善終)할 상격(相格)이 아니라 어서 경히 초악하여 수매를……(가선 필자)

(명주보월빙 권 21, 전사 자료 제 2 권 p. 18)

윗 글은 윤 광천과 유 부인의 姪女인 유 교아와의 결혼 장면이다. 윤 광천은 원래 이 혼사를 그리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으나, 숙모인 유 부인의 강요에 못 이겨 결혼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혼례를 올리는 날 슬쩍 엿본 유 교아의 모습은 살기가 넘치고 두 눈에는 독사의 음험함을 겹하여, 얼굴에 不吉之氣가 가득한 모습으로 善終할 相이 아니었다.

천상적 인물의 속성을 지닌 윤 광천의 눈에 비친 유 교아의 모습은 그대로 서술자의 시각이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복선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외형적으로는 윤 광천의 관점에서 서술된 유 교아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작중 인물이 내리는 다른 작중 인물에 대한 판단도, 천상계가 보호해 주는 서술적 권위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로 독자에게 認知된다.

천상계에 의하여 권위가 부여된 서술자의 목소리가 등장 인물의 대화에까지 침투하기도 한다.

㉠ 윤시의 화란이 초악하오나 그 상외 누설 중(陋說中) 玆요박복지 아니라 흥연지 오라더 맛츨너 운건(運蹇)하여 화익의 썩겨시나 김흔 님네 업슬디라 원 조정(慈情)은 과상치 마르쇼셔.

㉡ 양시의 상외 슈화 등의 드러도 위티치 아닐 거시오 필연 실존훈 소식이 삼소년의 이시리니 원 조모는 과상치 마르쇼셔.

㉢ 윤시 결단코 玆요박복지상(玆天薄福之相)이 아니오니 원컨더 대인은 물우소려(勿憂消慮)호쇼셔.

(명주보월빙 권 31, 전사 자료 제 2 권 pp. 223~224)

위의 인용문은 모두 등장 인물의 대화이다. 천 년 묵은 여우의 변신인 신묘랑에게 납치당한 鄭府의 윤 부인과 양 부인을 걱정하는 부모에게 사태가 호전되기를 바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자녀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와 ㉢는 정 천홍의 발언이고, ㉠는 천홍의 부친인 정 연의 발언이다. 그리고 발언의 대상 인물로서 ㉡의 대상은 천홍의 조모이며, ㉢는 천홍이 부친인 정 연에게 하는 말이다.

㉔의 발언은 정 연이 그의 모친이자 천홍의 조모인 鄭府의 태부인을 향한 것이다. 이처럼 발언의 당사자와 그 상대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인용문에서 느낄 수 있는 목소리는 단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것은 부모를 위로하는 자식의 처지에서의 발화이면서, 동시에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발언 속에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물의 발언에 서술자의 언어가 부단히 간섭하는 현상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화체 문장인가를 의심하게 된다.”⁵³⁾

그러므로, 「명주보월빙」에 나오는 인물의 발언은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인상의 제시나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능보다는, 서술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정보 제공으로서의 기능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발화 현장의 생생한 인상보다 발화의 내용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중 인물에 의한 발화는 내용 자체의 신빙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도, 그 발화 내용이 구성상의 사건들로서 확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작중 인물에 의해서 전해진 정보는 서술자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지는 정보만큼 결코 믿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⁵⁴⁾ 곧 윤 부인과 양 부인이 신묘랑 때문에 발생한 그들의 고난을 극복하고 무사하리라는 정 천홍과 정 연의 발언 내용이 작품 내의 사실로 확정되려면, 플롯의 경과를 따라 구체적인 사건의 제시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작품을 모두 읽지 않아도 윤·양 부인의 장애 극복을 위의 대화만 읽고도 확정된 사실로 이해하게 된다. 더구나 단 한 번이라도 고전 소설에 대한 독서 체험을 갖고 있거나, 천상계에 입각한 신성 문화 감각을 다소라도 지닌 독자라면 더욱 그렇다. 이 경우에도 천상계는 서술자의 목소리에 확실성의 권위를 부여하는 내포 규범으로서, 작중 인물의 발언의 신빙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서술자와 공모 관계를 이루는 독서 역학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작품 세계에 서술자가 개입하는 양상은 현대 소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불필요한 간섭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명주보월빙」이라는 허구 세계에서는 천상계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가장 확실한 정보원으로 서, 조선 왕조의 독자와 같은 단순한 독자들이 작품 세계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품의 가해성을 높이는 구실을 한다. 특히 「명주보월빙」과 같은 대하 서

53) 金炳國, 앞의 논문 p. 102.

54) WILLIAM KENNY, 앞의 책 pp. 81~87 참조.

“We must remember that information imparted by a character is never as reliable as information imparted directly in the author’s own voice. . . it is confirmed by the incidents of the plot.”

사물일 경우에는, 이러한 천상적 서술 감각이 사건 전개에 흐름을 잃지 않도록 하는 안내자로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상에서 고찰한 서술자의 권위는 작품의 가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정해진 방향으로 유도해 내는 구실을 하면서, 독자의 독서 체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것을 다음 항목에서 살펴기도 한다.

3.4 거리 통일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품 세계에 직접 개입하여 독자의 共鳴을 촉구하는 것은 고전 소설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소설, 특히 18·19세기 소설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소위 講談師, 講唱師, 講讀師 등으로 지칭되는 이야기꾼의 발달은 소설이 구연과 낭독에 편리한 聽文藝로서 발달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⁵⁵⁾ 이와 같이 구연 문예로서 소설이 존재했다는 것은 독자의 독서 체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즉, 구비 서사 문학에 있어서, 청자(聽者)의 허구 세계에 대한 개입은 매우 한정적이며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구연자의 이야기를 듣고, 능동적이면서 주관적으로 이야기에 대한 청자 나름의 해석이나 논평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자는 서술자(이야기꾼)의 허구 세계에 대한 평가적 관점이나 감정적 태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연 문예로서의 특징은 이 이야기들이 문자화된 국문 소설의 경우에도 그대로 남게 된다.

「명주보월빙」의 서술 양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명주보월빙」은 완전히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라, 기존의 국문 고전 소설의 여러 유형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으므로, 고전 소설의 구비적 존재 양식에서 나타나는 수사적 특징이 이 작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명주보월빙」은 대장편이므로, 실제로 구연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구연 서사물서의 전술한 서술 양상의 특징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성이 더욱 대로하여 입을 트러막고 쇼져의 몸을 단단히 동혀 혼 님 거적의 너 허 빠미니 쇼제 정신과 인스는 이시나 실인을 공연이 듯기 ㅸ 시신을 동히니 천금 약질이 엇디 걸터리오. 일성(一聲) 탄식과 두 번 늦기는 원역이 탄디신명(天地神明) 이 혼 가더로 참연(慘然) 홀 비라. ……성이 양시를 높히 드러 물궂은더 더디고 경직(頃刻)의 홍용(洶湧) 혼 물결의 간 바를 모로니 초호석적(嗟乎惜哉)라 (가선 필자)
(명주보월빙 권 81, 전사 자료 제 5권 p. 8)

55) 林燮澤, “18·19世紀 <이야기꾼>과 소설의 발달”, 김 열규 등 편, 「古典文學를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76, pp. 310~332 참조.

윗 글은 정 천홍의 동생인 정 세홍이 再娶로 맞아들인 성 난화라는 요녀의 모함으로, 正室인 滿朔의 양 부인을 후원 연못에 던져 살해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서술자는 양 부인에 대한 동정적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방탕한 남편과 사악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어진 아내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서술자는 냉정하거나 침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서술자는 양 부인에 대하여 강한 동정심을 보임으로써, 작품 속의 등장 인물에 대한 거리를⁵⁶⁾ 최대한으로 가깝게 만들고 있다. 서술자의 시선은 작품 세계에서 분리된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찰자의 그것이 아니라, 작품 세계에 몰입하여 감정 연루의 색채를 띠고 있다.

독자들은 위와 같은 서술자의 동정적 시선이 바로 독자 자신의 입장이라는 독서 체험을 하게 된다. 천상계의 수사적 역할 중의 하나는, 작품의 서술자가 작중 인물들에 투사시키는 도덕적 평가나 감정적 태도를 독자들도 그대로 수용할 수도 록, 서술자와 독자가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갖는 거리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즉, 서술자는 작품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작품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독자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명주보월빙」의 독자는 스스로 독립적인 자유를 갖고 주관적으로 작품에 반응한다기 보다는, 천상계라는 내포 규범의 절대적 권위를 등에 업은 서술자에 의해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동 반응의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독자와 서술자의 작품 세계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공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작품적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명주보월빙」이 감상되던 전통 사회가 비록 세속적인 물질적 가치관의 사회로 서서히 변동되어 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개인을 초월하는 공동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다는 것이, 소설의 담론 구조로 나타난 것이다. 천상계는 그러한 초자아적인 이념을 대변 하면서, 소설 수사학의 측면에서는 서술자와 독자의 작품 세계에 대한 태도를 하나로 통일시킨다.

서술자와 독자의 공감력은 이성에 의한 냉철한 시각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편향성에 의지한다. 이러한 감정 편향성에 비판적 거리의 색채를 부여 하는 것도, 작품의 내포 규범인 천상계이다.

지금까지 「명주보월빙」에 나타나는 천상계의 작품 구조적 의미를 존재론적 측면

56) 문학 비평에 있어서 거리(distance)는 문학 작품에 나오는 어떤 작중 인물의 행동이나 운 명과 독자의 거리, 또는 '초월'(detachment)의 정도-거꾸로 말한다면 독자의 연루 또는 관심의 정도를 말한다. (에이브람스의 앞의 책, p. 70)

과 수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그 중에서도 서사물 전달의 체계로서 기능하는, 즉 수사적 의미 체계 안에서의 천상계의 작품적 존재 양상을 좀더 자세하게 고찰한 셈이다. 그런데 존재론적 의미의 천상계와 수사적 의미의 천상계가 작품 구조의 측면에서 통합된 안목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려 한다.



IV. 수사학과 형이상학의 갈등

앞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천상계는 존재론적 의미와 수사적 의미라는 이중적 의미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형이상학적 관념과 서사 소통의 방법론으로서 존재하는 천상계의 두 양상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여, 그것이 어떤 작품적 의의를 갖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작품 속에서 대표적인 등장 인물의 일대기를 추출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자. 논의의 편의상 2 명만 정리한다.

◆ 윤 광천의 일대기

1. 명문의 자손.
2. 탄생을 예시하는 태몽.
3. 부친이 사망한 후 유복자로 탄생.
4. 위 부인과 유 부인의 학대로 인한 고통.
5. 자객 구 몽숙의 살해 기도를 신통력으로 물리침.
6. 과거에 장원급제.
7. 천정배필과의 혼례.(정·진·남·화 4 소저와 차례로 결연)
8. 독살 위협을 모면.
9. 유 교아와 勒婚, 그녀의 淫慾과 광천의 증오.
10. 綱常大罪로 누명을 쓰고 유배.
11. 장사왕의 반란을 평정하려고 출진, 대원수 손 화과의 갈등으로 처형 위기에 처함.
12. 정 해주 소저(광천의 제1 부인), 광천 구출.
13. 장사국에 재출진, 장사왕과 그에게 改嫁한 유 교아 살해.
14. 화 도사, 광천 先親의 화상을 광천에게 전달, 尹府의 장래 부귀영화를 예언.
15. 先親이 忌日에 광천의 꿈에 나타나 광천을 위로.
16. 지극한 효심으로 위·유 부인을 개과천신하게 함.
17. 위국 반란을 평정.
18. 진왕의 반란을 평정, 평진왕에 책봉됨.
19. 부귀영화의 결정.⁵⁷⁾

◆ 정 해주의 일대기

1. 출생 이전에 윤 광천과의 神物定婚.(신물—명주, 보월패)
2. 광천과의 혼사를 훼방하려는 위·유 부인에 의해 황태자의 후궁으로 천거 됨.

57) 성 숙, 앞의 논문, pp. 38~40.

3. 윤 광천과 결혼.
4. 위·유 부인의 구박으로 고통스런 시집살이.
5. 조 부인을 살해하려는 兩兇(위·유 부인)의 흉계를 막음.
6. 兩兇과 신묘랑의 흉계로 兇漢 위방에게 납치될 위기.
7. 밤에 침입한 虎豹를 신통력으로 물리침.
8. 兇漢 위방의 야반 침입을 계교로 퇴치.
9. 媿父母를 살해하려 했다는 兩兇의 모함으로 綱常大罪에 얽힘.
10. 진 소저(윤 광천의 再室)와 함께 후원 연원정에 갇혀 瀕死之境에 빠짐.
11. 윤 추밀(媿三寸 윤 수)을 죽이려 했다는 누명을 씌움.
12. 벽화정에서 獄中分娩.
13. 신묘랑이 정 혜주로 둔갑, 假유교아를 살인하매 살인 죄인이 됨.
14. 장사국으로 유배됨.
15. 장사국 왕비 유 교아가 위·유 兩兇과 내통하고 정 혜주를 장사왕에게 천거.
16. 납치 기도 퇴치.
17. 남자의 옷으로 변장하여 도주 중에 계모의 학대로 죽게된 남 회주 소저를 구출.
18. 화 평장사의 청으로 화소저와 權道僞婚.
19. 화 도사의 도움으로 전쟁터에서 광천 구출.
20. 明賢孝義淑烈妃의 褒獎을 皇上으로부터 받음.
21. 尹府에의 영예로운 大復歸.⁵⁸⁾

위에서 정리한 윤 광천과 정 혜주의 일대기는 각각 서로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간략하게 줄여서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인물의 일대기를 통한 작품의 사회·문화적 含義가 동일한 작품임에도 연구자에 따라 상이성을 보여 주목된다.

명주보월빙은……인간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과 작가 의식의 측면에서 집단적인 효의 개념과 더불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발전적 사고 방식의 발로는……세속 소설로 이행하려는 과정으로 본다.⁵⁹⁾

위에서 한 연구자는 「명주보월빙」의 남성 주역 인물들을 분석한 결과를 「유충렬전」과 비교하면서, 「명주보월빙」의 인물들이 더 인간적이고 지상적인 속성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윤 광천과 같은 인물은 자신의 비범성

58) 李相澤, 앞의 논문(1981), pp. 34~36.

59) 성 숙, 앞의 논문, p. 51.

과 신이함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초월적인 막후 인물의 가르침을 받은 부인 정 혜주의 지략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사실과, 가내의 변란을 신이한 능력으로 대처하기보다 그 사회 최대의 윤리 개념인 효의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상택은 위의 두번째 정 혜주의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다음과 같이 작품적 숨義를 해독하고 있다.

1. 남녀간의 혼사는 신의 의도에 따라 미리 예정된 것으로 이는 지상적 인간이 자의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숙명에 속한다.
2. 혼사는 특히 여성들에 있어서는 삶의 시작이고 종결이며 분리—고행—귀환의 끝없는 순환 반복을 통하여 그 天定性의 완성과 확인이 이루어진다.
3. 지상적 인간은 그 이기적 사욕 때문에 천상 주재자의 의도에 집요한 거역과 저항을 반복하나 결국 패배한다.⁶⁰⁾

작가 의식의 지향점을 전자는 지상적·세속적 삶의 현실에, 후자는 천상적 삶의 질서로 통합되어 가는 지상적 삶의 모습에 두고 있다. 하나는 세속 소설로의 이행이요, 다른 하나는 신성 소설의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동일한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명주보월빙」이 그만큼 작가 의식의 면에서 복잡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명주보월빙」은 그때까지 있었던 다른 어느 소설보다 더욱 초현실적 감각과 천상적 신이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족적 영웅 소설류에서 볼 수 있는 양반 관료의 지극히 현실적이며 세속적 부귀영화를 향한 적극적 관심 또한 어느 소설을 훨씬 능가한다. 윤 광천의 일대기에서 볼 수 있는 일부 다처의 합리화와 전쟁 영웅으로서 왕의 지위에까지 올라 최고의 부귀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조선 왕조 소설의 전기적 서사 양식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배 계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여자, 화려한 가정, 높은 벼슬에 올라 소임을 다하여 충성된 신하가 되는 일, 자손 번창 등으로⁶¹⁾ 요약할 수 있는 유교 문화적인 입신출세, 부귀공명을 향한 인물들의 삶은 그것 자체가 작가의 지속적이고 중요한 관심사임을 숨길 수 없다.⁶²⁾ 그것을 단순히 천상적 삶의 질서와 세계관을 보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수단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만 이해하면, 이는 다분히 현상적 이해에 머물게 된다.

60) 李相澤, 앞의 논문(1981), p. 37.

61) 玄吉彦, “朴氏夫人傳의 主題에 대한 一考察: 傳記의 敘事樣式에서 主題問題”, 『韓國言語文學 第20 輯』, pp. 174~175.

62) 崔吉容, 앞의 논문, pp. 164~179 참조.

그렇다면 천상적 초월주의와 세속적 현실주의라는 두 가지 세계관의 특질이 공존하는 현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문제는 작품 구조가 둘로 분열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 있는 신몽 부분은 「명주보월빙」에 나타나는 거시적 구조의 단면으로서, 전체적인 줄거리 진행의 대전제이다. 이 거시적 구조는 천상과 지상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고, 도덕적 당위성 또는 권선징악이라는 시적 정의⁶³⁾에 의한 작품적 결구를 형성한다. 그리고 지상계의 현실은 天定之數의 발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 주면서, 관념과 이성 혹은 형이상학적 성찰의 축을 제시하는 것이 거시적 구조이다. 天理와 人慾, 前生과 此生, 꿈과 현실, 천상계와 지상계, 正人와 妖道 등의 2원적 대립항은⁶⁴⁾ 거시적 구조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가치를 추구하고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시적 구조는 서사의 진행을 따라 구체적인 독서 체험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서술의 국면이다. 거시적 구조가 전체적인 스토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도덕적 인과율의 논리를 지향한다면, 미시적 구조는 텍스트의 개별적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적 체험을 지향하고 있다. 미시적 구조에서 작자는 끊임없이 주역 인물군의 현세적 행복의 성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시시(是時)의 인중황애 운부의 샬(賜宴) 샬악(賜樂) 하시고……삼일 대연을 주시니 먼저 삼일은 단왕의 공녀로써 그 조모와 모비귀 설연 헌작(設宴獻酌)계 하시고 후삼일은 승상의 위친디효를 빚너시며 운공 부부귀 현슈케 하시니 그 은영이 만고의 회한하고 텃통이 일세의 웃듬이라 만묘 거경(巨卿)과 황친국척(皇親國戚)과 연인부가(連姻府家)니 각각 너부를 거나려 성연을 구정홀시 단궁 너외 청소(廳舍)를 쇠소(灑掃)하고 부계를 널니 베퍼 금슈포던(錦繡鋪陳)과 농문 치화석(龍紋彩畫席)을 성히하여 백운초일(白雲遮日)은 반공의 님니하고 운무병(雲霧屏)과 비취장(翡翠幃)은 일식을 그리오며 취운산 추경(秋景)이 가려(佳麗)하여 좌우 단풍이 홍나장(紅羅帳)을 가리운듯 국화는 난만하여 향기를 토하거늘 청턴은 파사하여 일점 부운이 업스니 물색(物色)이 변화(繁華)를 돕는다라. ……운공이 추연 탄식고 등빈으로 더불어 담화홀시 누디 광실(樓臺廣室)의 조포 오스(紫袍烏紗)와 금옥 관면(金玉冠冕)이 나랏하여 왕공 후빈이 아니면 옥당명신라 그 부성하미 눈이 현황홀물 서듯디 못하거늘 이 가온디 평진왕이 텃일지표와 농봉 조덜이 척탕(嶽宕)하여…… 가사(詞話)

(명주보월빙 권 100, 전사 자료 새 5권 p. 411)

63) 시(문학)는 독자적인 영역이며 <適正律>(Decorum)과 도덕율이라는 그 자체의 고차원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어야지 실세계에 있어서의 사물의 이치에 의한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라이머의 가설(에이브람스의 앞의 책, p. 222)

64) 李相澤, 앞의 논문(1981), p. 83.

위에서 尹府에 내려진 賜宴의 광경은 가히 부귀영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나라에 대하여 大功을 세우고 지극한 효성으로 위 부인과 유 부인을 개과천선토록 한 광천 형제에 대하여 황제가 베풀어 준 三日大宴을 묘사하는 서술자의 어조는, 天理를 긍정한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소박한 논리의 차원에서 얻어지는 도덕적 교훈주의가 아니라, 그 보상 자체의 화려함에 대한 무한한 감탄과 부러움의 시선이다. 즉 미시적 구조는 세속적 욕망의 극대화가 작가의 궁극적 관심사임을 드러낸다. 허다한 고난과 시련의 발생도 최종적인 결말의 행복을 위한 전주곡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윤 광천의 경우 그 숀한 역경을 극복하면서, 그는 서사의 진행이 진전함에 따라, 여러 명의 요조숙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벼슬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룬다. 그러므로 미시적 구조는 소박한 감성과 충동의 원리에 지배받으며, 현세적 욕망의 성취에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시적 구조의 입장에서 볼 때, 천상계는 그 자체로서 작가의 중요한 성찰의 대상이라기보다, 주인공에게 유교적인 靑雲의 삶을 보장해 주는 요소일 뿐이다. 이처럼 미시적 구조의 초점이 세속적 현실주의에 놓여 있으므로, 미시적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천상계의 작품적 의미를 존재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관념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미시적 구조에서 천상계는 수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것이 미시적 구조에 나타나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세속적 욕망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앞에서 검토한 부분적 서술 양상에서 나타난 천상계의 수사적 기능을 납득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천상계는 거시적인 신몽 구조의 차원에서는 형이상학적 관념의 체계를 이루지만, 미시적인 서술의 국면에서는 수사적인 기법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명주보월빙」의 천상계라는 공간성이 수사학과 형이상학으로 분리되어 서로 대립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서사 문학 전통에서 존재론적 가치(당위와 본질을 드러내는 것, 가치관)의 핵을 이루던 천상적 신비로움이, 조선조 말기의 「명주보월빙」에서 대하 소설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방법론으로 기능하게 된다. 비록 초역사적 세계에 대한 신념과 경외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지만, 존재론적 의미의 천상계가 소설적 트릭으로 변용되고 있는 것을 「명주보월빙」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조선조 말기의 국문 대하 소설류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천상계의 작품 구조적 의미가 둘로 분열된 것을 작가 의식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이것은 신성 문화의 시대에서 근대 물질 문명에 기초한 세속 문화의 시대로 이동하는 과도기의 인간이 겪어야 하는 세계관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명주보월빙」의 천상계에 함축된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하면, 현실적 갈등을 비현실적으로 처리해 보려는 세계관 전환기의 소설 양식일 가능성이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⁶⁵⁾ 이것은 신소설이 소재 차원에서 新이지 그 구성에 있어서 역시 고대 소설의 계승임과 함께, 과도기 소설의 1·2 단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명주보월빙」은 구성과 분량의 면에서는 고전 소설의 전성기임을, 구조적인 분열상을 통해서는 몰락기임을 동시에 보여 준다.



65) 「명주보월빙」이 조선 말기인 18·19세기 소설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V. 결 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결어를 삼고자 한다. 본고는 「명주보월빙」에 나타나는 천상계의 존재 양상을 작품 구조의 차원에서 이해하여, 그것이 갖는 작품적 의의를 살피는 데 있었다. 특히 필자는 서사 소통의 방법론으로서 천상계를 이해하는 수사학적 관점을 중시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내용 구조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천상계는 실재의 비롯함으로, 그 실재의 규범적 가치의 원천으로, 그리고 삶을 위한 준거의 틀로 기능하는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서사체 전달 구조의 측면에서 이해할 때, 천상계는 허구의 세계를 독자에게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사적 근거로서, 작품의 연역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수사적 근거로서 기능하는 천상계의 여러 국면을 아래에 제시한다.

- (1) 천상계는 「명주보월빙」에서 초현실적·초경험적 문화 感應의 기저 규칙으로서 작품 이해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변신 모티브나 요약 사용의 사건담과 같은 비현실적 요소가 작품 내부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옹호하는 기능을 한다.
- (2) 천상계는 등장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가치 기준이나 평가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것은 작품 전체를 일관하는 함축적 통어력으로서 내포 규범이라고 부를 만하다.
- (3) 서술자의 직접 한정에 의한 인물 구성과 외양을 통한 인물 구성에 확실성을 보장한다. 천상계의 근원적 절대 권위로 말미암아 인물 구성에 있어서 현실적 모순과 불합리가 허구 세계에서 문학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 (4) 천상계가 부여한 서술의 권위를 바탕으로 서술자가 작품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작품 이해에 필요한 정보 공급의 원천으로서, 조선 왕조의 독자들과 같은 단순한 독자들이 작품 세계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품의 가해성을 높이는 구실을 한다. 특히 「명주보월빙」과 같은 대하 소설일 경우에는 이러한 천상적 서술 감각이 사건 전개에 흐름을 잃지 않도록 하는 안내자로서 필수적이다.
- (5) 천상계의 수사적 역할 중의 하나는, 작품의 서술자가 작중 인물에 투사시키는 도덕적 평가나 감정적 태도를 독자들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서술자

와 독자가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갖는 거리(distance)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세째, 천상계의 존재 양상이 존재론적 국면과 수사적 국면으로 나뉘어, 하나는 형이상학적 관념의 체계를 이루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데에 작가의 관심이 놓인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서사물 소통의 방법론으로 기능하는 것은 천상계의 작품 구조적 성격이 둘로 분열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 (1) 이 구조의 분열상을 작가 의식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이것은 신성 문화의 시대에서 근대 물질 문명에 기초한 세속 문화의 시대로 이동하는 과도기의 인간이 겪어야 하는 세계관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 (2) 문학사적 의미에서 구조의 분열상을 고찰하면, 「명주보월빙」의 천상계는 현실적 갈등을 비현실적으로 처리해 보려는 세계관 전환기의 소설 양식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國語國文學辭典,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 1973.
- 金起東;「李朝時代小說論」,精研社, 1957.
- _____ :「韓國古典小說研究」,教學研究社, 1983.
- 金起東;“明珠寶月聘과 尹河鄭三門聚錄:李朝連作小說의 研究(其四)”,徐炳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형설출판사, 1979.
- 金東旭;“李朝小說의 作者와 讀者에 대하여”,「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湖西文化社, 1971.
- _____ :「國文學史」,日新社, 1981.
- 金炳國;“고대소설 敘事體와 敘述視點”,李相澤·成賢慶 編,「韓國古典小說研究」,새문社, 1983.
- _____ :“口碑敘事詩로서 본 판소리 사설의 구성 방식”,「韓國學報」,일지사, 1982.
- 金美蘭;「古代小說과 變身」,正音文化社, 1984.
- 金烈圭;“民間傳承과 韓國의인 것”,李相日 等 共著,「韓國思想의 源泉」,博英社, 1976.
- _____ :「韓國民俗과 文學研究」,一潮閣, 1972.
- 金鎮世;“玩月會盟宴研究(一)”,「冠嶽語文研究」第2輯,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7.
- _____ :“玩月會盟宴研究(二)”,「冠嶽語文研究」第4輯,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9.
- _____ :“玩月會盟宴研究(三)”,「冠嶽語文研究」第5輯,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0.
- 金鎮世;“李朝後期大河小說研究:玩月會盟宴의 경우”,韓國古典文學研究會 編,「韓國小說文學의 探究」,一潮閣, 1978.
- _____ :“嚴氏孝門清行錄研究(一)”,「白影鄭炳昱先生還甲紀念論叢III」,新丘文化社, 1983.
- _____ :“雙釧奇逢研究”,「冠嶽語文研究」第一輯,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6.
- _____ :“華山仙界錄研究(一)”,「冠嶽語文研究」第九輯,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4.

- 金興圭：“관소리의 敘事的 構造”，趙東一·金興圭 編，「관소리의 理解」，창작과 비평사，1978.
- 明珠寶月聘 1～5，韓國精神文化研究院 刊，1980.
- 朴逸勇：“영웅소설 유형변이의 사회적 의미”，韓國古典文學硏究會 編著，「近代文學의 形成過程」，文學과 知性社，1983.
- 成 淑：“明珠寶月聘硏究”，梨花女大 文學院 碩士學位論文，1979.
- 成賢慶：“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嶺南大學校 出版部，1981.
- 李能雨：“古小說에서 보여지는 民間 하늘觀”，「古小說硏究」，二友出版社，1973.
- 윤성근：“儒學者의 소설 배경”，「語文學」25，韓國語文學會，1971.
- _____：“유충열전 연구：대립과 갈등의 측면에서 본 선악관”，「常山李在秀博士 還曆紀念論文集」，螢雪出版社，1972.
- 李文奎：“國文小說에 대한 儒學者의 批評意識”，「韓國學報」第30輯，一志社，1983.
- 李相澤：“古典小說의 社會와 人間”，金烈圭 等 編，「古典文學을 찾아서」，文學과 知性社，1976.
- _____：“明珠寶月聘硏究：그 構造와 存在論的 特徵”，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81.
- _____：“寶月聘連作의 構造의 反復原理”，「白影鄭炳昱先生還甲紀念論叢」，新丘文化社，1983.
- _____：“樂善齋本小說硏究(I)：그 예비적 작업으로서의 婚事障 礙 主 旨의 問題를 中心으로”，韓國古典文學硏究會 編，「韓國小說文學의 探究」，一潮閣，1978.
- _____：“家門小說硏究”，螢雪出版社，1980.
- 林煥澤，“18·19 世紀<이야기꾼>과 小說의 發達”，金烈圭 等 編，「古典文學을 찾아서」，文學과 知性社，1976.
- 정병욱：“조선조 말기 소설의 유형적 特徵：낙선재 소설의 몇 작품을 중심으로”，「한국 고전의 재인식」，弘盛社，1979.
- 鄭鉉東：“古代小說論”，螢雪出版社，1966.
- 鄭鎮弘：“韓國宗教文化의 展開”，集文堂，1986.
- 趙東一：“韓國小說의 理論”，知識產業社，1977.
- _____：“한국문학통사 3」，知識產業社，1984.
- 曹壽鶴：“古小說文體攷”，「韓國語文論叢」，姜馥樹博士回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

- 會, 형설출판사, 1976.
- 崔吉容; “明珠寶月聘連作小說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1984.
- 崔昌祿; 「韓國小說의 文體論的 研究」, 형설출판사, 1981.
- 한국사연구회 편, 「韓國史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1.
- 황패강; “韓國古典小說研究史 序說”, 「韓國學報」 제34집, 一志社, 1984.
- 황패강 등 편;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 玄吉彦; “朴氏夫人傳의 主題에 대한 一考察: 傳記的 敘事樣式에서 주제 문제”, 「韓國言語文學」 제20 집, 1981.
- Gillian Beer 著·文祐相 譯, 「로망스」, 서울대학교 出版部, 1980.
- 로저 파울러 著·金貞信 譯, 「言語學과 小說」, 文學과 知性社, 1985.
- 틀랑 부르뇌프·레알 웰레共著·金華榮 譯, 「소설의 세계」, 文學思想 1984년 1월호~1985년 4월호.
- 루카치 著·潘星完 譯, 「小說의 理論」, 심설당, 1985.
- M.H. 에이브람스 著·崔翔圭 譯, 「문학용어사전」, 大邦出版社, 1985.
- S.리몬-케넌 著·崔翔圭 譯, 「小說의 詩學」, 文學과 知性社, 1985.
- 츠베탕 토도로브 著·郭光秀 譯, 「構造詩學」, 文學과 知性社, 1977.
- Jonathan Culler; *Poetics of the Novel: Structuralist Poe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9.
- Rebert Scholes·Robert Kellogg; *The Nature of Narra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Wayne C.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Wellek, R. & Warren, A.; *Theory of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8.
- William Kenny; *How to analyze Fiction*, Monarch Press, 1966.

Summary

Rhetorical Approach into heavenly world of *Myoung-ju Po-wol-ving*

Bu In-sik

The theme of this article is interpreted by the level of work's structure in an aspect of the heavenly world to make the existence of heaven more meaningful. Meanwhile advancing the research, I particularly gave prominence to rhetorical view, in which the heavenly world is considered method to transmit narrative. The result of research is summarized like these :

1 . In the aspect of content structure of the work, the heavenly world as a real existence has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which have the function of criteria for living and of a resource of real norm value.

2 . When we interpret the heavenly world in viewpoint of structure transmitting narrative. It is the rhetorical base to tell readers fictional world naturally and effectively, and is also considered as deductive principle. The several situations of the heavenly world having functions as a rhetorical base are suggested as follows.

- 1) In *Myoung-ju Po-wol-ving*, the heavenly world is precondition understanding work , which is sub-rule of surrealistic and transcendental cultural corresponse. So it supports adequacy inner content of work using unreal elements like transfigure motive and accidents using magic durgs.
- 2) The heavenly world hold authority over narrative's attitude for characters and present value-creteria and evaluation views to understand literary world. So this is possible to be a connotative rule as an implicated control power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total story of the work.
- 3) The heavenly world secure the confirmation of framework of characters by

narrator and of organization of characters by their appearances. And the based absolute authority given in the heavenly world overcome realistic paradoxes and unreasons in the framework if characters literily using a fictional world.

4) The narrator actively involved in the work by having the narrative authority presented by the heavenly world, and which is the source of supplying the necessary informations to interpret work. And this is essential for the simple readers like those in Choson Dynasty easily to have access to literary world, and it has the role of accumulating vilolent characteristics in work. Especially, the narrative sense about heavenly world in Saga Novel like *Myoung-ju Po-wol-ving* is necessary to be a guide by which the process of accidents is consistent.

5) One of the rhetorical roles of the heavenly world accomplishes unity of distance, which narrator and readers feel about the literary world respectively. And then it is possible for reader to accept moral valuation and emotional attitude as much as narrator of work who project on characters.

3. The existential aspect of the heavenly world is divided into ontological and rhetorical bases. One set up metaphysical conceptual system, and the other seek after literally worldly fame. The methods transmitting narrative which duces a story having the interest of narrator, have two meanings in terms of two kinds of literary structural characters in the heavenly world.

1) When we understand what is splited into two literary sturctual characteristics in the heavenly world at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author, this is the confusion of the sense of world which people should go through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times of culture based on God to the times of worldly culture based on modern material civilization.

2) When the split state oh structure are observed in a view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the heaven in *Myoung-ju Po-wol-ving* has a meaning of the world view that realistic conflicts are solved in an unreal way.

◆ 작품의 줄거리

宋나라 眞宗 때의 이야기다. 史部尙書 윤 현과 太中大夫 윤 수는 형제간으로서, 형은 前夫人 黃氏의 소생이요, 아우는 後夫人 魏氏의 소생인데, 황 부인은 죽고 위 부인은 현존하고 있다. 윤 현의 夫人 조씨는 開國功臣 조 빈의 딸로서 賢淑하나, 윤 수의 부인 유씨는 이부상서를 지낸 유 찬의 딸로서, 어질지 못하여 위 태부인과 함께 조 부인을 몹시 미워한다.

윤 상서는 친구인 御史大夫 하 진과 大司徒 정 연과 함께 江上에서 船遊를 하다가 갑자기 용이 나타나 윤 상서 앞에는 明珠 네 개를 토해 놓고, 하·진 兩公 앞에는 寶月佩 한 줄씩을 토해 놓고 나서는, 세 사람을 향하여 세 번 머리를 숙이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각각 그 명주와 보월패를 가지고 돌아와 生男生女하거든 聘物로 삼자고 한다. 이윽고 三公의 부인들이 生男生女할새, 윤상서의 딸 명아는 정공의 아들 천홍과 약혼하고, 윤 수의 次女 현아는 하 공의 4男 원광과 약혼한다.

이 때, 금국이 배반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황제는 자원하는 윤 상서를 正使로 삼고, 정 연을 副使로 삼아 보낸다. 윤 상서는 떠나면서 조 부인에게 쌍둥이를 낳으면, 長子는 광천, 次子는 희천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말한다.

윤 상서가 떠나자 위 태부인과 유 부인은 조 부인과 명아를 밤에 독약을 넣어 죽이려고 하나, 윤 상서가 주고 간 解毒丸을 먹고 살아난다. 윤 상서가 가는 도중 친구인 화 도사를 만나 앞일을 의논할새, 조 부인이 變兒를 낳는데, 次子는 아우의 養子가 될 것이요, 長子는 6夫人을 거느릴 것이며, 次子는 2夫人을 둘 것이라 한다.

윤 공과 정 공이 금국으로 들어가니, 副使 정 공을 가두고 正使 윤 공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지라, 윤 공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자결한다. 금국왕은 윤 공의 忠節에 감복하여 부사 정 공을 풀어 주며 윤 공의 시신을 본국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이 때, 조 부인이 쌍아를 낳고 기뻐하다가, 남편이 시신으로 돌아옴을 알고 大聲痛哭한다. 윤 수는 형의 3년상을 마치고, 형의 아들인 희천으로 양자를 삼고 작은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繼父라 부르게 하니, 형 광천은 영웅의 기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우 희천은 君子の 氣風을 가지고 태어났다.

윤 수의 차녀 현아는 착하나, 장녀 경아는 고약하고 妬心이 강하여 광천 형제를 미워하다가, 石樞密의 3男 준과 결혼하니, 석 준과 같은 뛰어난 대장부의 눈에 경아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둘 사이의 금실은 좋지 않다.

위 태부인은 유 부인이 빨리 生男하여 광천 형제를 없애고 윤씨 집안의 대를 자신의 혈육에게 잇게 하려는 마음에 광천 형제를 죽일 일만 생각하니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

이 때, 정 공은 광천으로, 하 공은 회천으로 사위를 삼거니와, 하 공은 원경·원보·원상·원광 등의 4 형제를 두었으나, 간신의 참소로 3형제가 역적으로 몰려 巡撫를 나갔던 하 공은 投獄을 당하고, 3형제는 斬形을 당하고 만다. 간신들은 하 공의 4男 원광마저 죽이고자 하는 것을 윤 수가 승상 조 순에게 간청하여 하 공의 혈통을 끊지 않게 하니, 11세의 원광은 죽음을 면하고 부친을 찾아간다.

이 때, 하 공이 巡撫를 나갔다가 투옥되었으나, 촉군 태수 한 흠의 후대를 받으며 귀양살이를 무사히 지낸다. 3형제의 죽음에 슬퍼하는 하 공의 꿈에 죽은 3형제가 나타나 人道還生을 시켜 주겠다고는 上帝의 말을 전한다.

윤 상서의 딸 명아와 정 공의 아들 천홍의 결혼 날이 닥쳐오매, 위 태부인과 유 부인은 윤 수가 先塋에 간 사이에 심복 위 방을 시켜 명아를 납치하게 하였으나, 명아가 눈치채어 광천의 옷으로 갈아 입고 피신하여 혜원이란 여승을 만나 벽화산 취월암으로 간다. 이 때, 정 천홍이 장원 급제하고 先塋에 가다가 취월암에 들러, 남북한 명아를 만나 보고 집으로 돌아와 윤 수에게 알려 결혼식을 올리니, 위 태부인과 유 부인의 殺氣는 더욱 冲天한다.

정 천홍이 東平章事 楊節光의 딸을 再娶하니, 윤 부인은 양 부인을 맞아 자매와 같이 의종게 지내는데, 천홍의 친구 구 몽숙이 위 태부인에게 매수되어, 윤 부인의 不淨을 거짓으로 꾸며 천홍에게 고자질하나 천홍은 들은 척도 않는다.

유 부인은 현아 소저와 權奸 김 중광을 억지로 결혼시키려 하자 회천은 김 중광을 응징한다. 김 중광은 황제를 움직여 현아와 중광을 결혼시키라는 傳旨를 내리게 하니, 현아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하 원광 부자가 있는 촉군으로 간다.

이 때, 윤 수는 巡撫御史가 되었다가 돌아와 樞密使가 되었는데, 현아의 가출을 알고 분개하여 현아를 찾아오게 한다. 이에 촉군에서 서신이 왔는데, 生男하였다는 것과 현아 소저를 데리고 와서 아들 원광과의 결혼식을 올리자는 사연이다. 위 태부인은 윤 수가 현아를 데리고 촉군으로 간 사이에, 조 부인과 출가한 명아를 죽이려고 하나 실패한다.

이 때, 정 천홍은 대원수가 되어 운남왕의 항복을 받고 회군하는데, 운남왕의 딸 윤영이 정 원수를 흠모하여 男服을 하고 따라온다. 정 원수는 회군하는 도중 경 참정을 찾아갔다가, 경 참정의 딸 숙혜를 보고 반하여 부모에게 말하지도 않고 취

한다.

윤 수는 축군으로 가서 현아와 원광의 결혼식을 끝내고 돌아와, 또 하 소저를 맞아 희천과 혼례를 행하니, 조 부인만이大喜할 뿐, 위 태부인과 유 부인은 조 부인 3 母子를 잃애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진다.

광천과 희천은 각각 진 소저와 장 소저를 재취로 맞아들인다. 이 때, 위 태부인과 유 부인이 또 광천 형제와 그들의 아내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다시 계교를 꾸민다.

정 연의 아들 천홍은 尹·楊·李의 3 夫人을 취하고, 또 문양 공주를 취해 駙馬가 되었으나, 공주와의 금실이 좋지 않고, 공주는 부마와의 雲雨의 樂을 알수록 3 부인을 잃애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그 음모가 아니 더친 곳이 없다. 이 때, 중광의 아버지인 김 후의 음모를 천홍이 폭로함으로써 김 후는 처형을 당하고 황제는 축군에 있는 하 공으로 參知政事를 삼고 上京하도록 한다.

尹府에서는 또 다시 위 태부인과 유 부인의 음모가 전개되어 쫓겨난 조 부인은 온갖 곤욕을 당하며 사경을 헤맨다. 하 공이 축군에게 돌아오니 尹府와 鄭府의 온 가족이 나가 맞이하고, 윤 수도 급히 나와 현아를 맞을새, 반가움이 북받쳐 울음으로 변한다. 현아가 伯母 조 부인과 언니 명아가 안 보여 걱정을 하니, 위 태부인이 거짓으로 失散한 說話한다.

한편, 鄭府에서는 공주가 윤·양 부인을 모해하여 하옥하였는데, 시비 태성이 극진히 보살핀다. 공주는 윤 부인이 아직 살아 있음을 알고, 심복인 최 상궁과 모의하여 윤 부인을 옥에서 끌어내어 연못 속에 水葬을 하고, 또 윤 부인이 낳은 아기마저 케에 넣어 강물에 버리니 萬古에 없는 極惡無道한 행위이다.

이 때, 정 공이 윤 수를 천거하여 交趾參正으로 가게 하니, 위 태부인과 유 부인의 발악은 더욱 심해지나, 하 부인이 시비들에게 尊姑의 흉악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니 河府에서는 尹府의 家禍를 알지 못한다.

鄭府에서는 정 천홍이 경 소저를 공주 몰래 취했는데, 공주를 도와 온갖 악행을 일삼은 요사스러운 존재인 신묘랑이 이를 알아 내어 공주에게 아뢰니, 공주가 切齒痛忿해 하며 경 부인마저 없애려 하는데, 신묘랑이 도술을 부려 경부인이 낳은 천홍의 아들을 훔쳐 와서 공주에게 주니, 연못에 가져다 버리게 한다. 경府에서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鄭府에 알리니 정 공이 비로소 천홍이 경 소저 취함을 알고, 천홍을 大叱하며 父子之義를 끊겠다고 한다. 천홍의 모친 진씨는 윤·양·이 3 부인과 함께 부부의 정을 나누지 못하는 아들의 신세를 슬퍼하며 탄식한다.

이 때, 하 원광이 장원 급제하고, 대원수가 되어 30 萬 大軍을 이끌고 역모를 꾀

한 초왕을 무찌르고 回軍하니 名望이 天下에 떨친다.

尹府에서는 윤 수가 交趾로 가고, 윤 광천도 出戰하여 없는 동안에 위 태부인과 유 부인의 奸計가 百出하니, 친정에 온 현아가 조모와 모친의 失德이 날로 더해감을 슬퍼한다. 유 부인이 희천의 아내인 하 부인을 구타 끝에 케에 넣어 강물에 던지려 한다. 이 순간 천홍이 시신이 든 상자를 奴僕으로부터 빼앗아 하 부인을 구출한다.

이 때, 윤 광천은 대원수가 되어 장사왕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윤 원수는 간신의 도락에 넘어가 역적으로 몰려 사형에 처해지니, 윤 원수를 암살하려던 자객 임성각과 乾相星數와 꿈을 통해 남편의 위기를 알고 이를 구하려고 달려온 정 부인의 도움으로 처형을 면한다. 그리고 광천은 다시 出戰하여 화 도사의 가르침을 받은 정 부인의 도움으로 싸움에 승리한다.

한편, 定配를 간 윤 희천이 發病하였을 때 장 공자가 나타나 극진히 간호를 해주는데, 알고 보니 결혼한 장 부인으로, 집안의 소식을 전하고 남편의 定配가 끝날 때까지 있기로 하거니와, 윤 희천은 解配되어 돌아와서 弘文館 太學士가 된다.

장사국을 평정하고 개선한 윤 광천에게 황제는 南昌侯를 봉한다. 이 때, 교지국에 있는 윤 수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위 태부인을 극진히 섬기며 개과천선을 간청하니 비로소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친다. 이로부터 남창후의 齊家와 威德이 肅然하여, 愛重이 고르고 家法이 嚴肅하여 恩威를 並行하니, 정 부인과 같은 聖女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다른 妻妾들도 두려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鄭府에서는 천홍의 동생인 세홍이 양씨를 취하고 또 성씨를 취하니 양씨와 성씨간의 爭寵이 벌어져 성씨가 양씨를 謀害한다. 천홍은 출전하여 반란군을 진압하고 개선하니 황제는 정원수를 齊國王으로 봉한다. 제왕의 생일을 맞아 太夫人이 大宴을 베풀고 손자의 영광을 기뻐한다.

尹府에서 남창후는 진왕의 반역을 진압한 공로로 평진왕에 봉해지고 유 부인은 광천 형제의 효성과 하늘이 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뉘우치고 善人이 된다. 황제는尹府에 賜宴을 내리니 歡悅의 극치를 이룬다.

이와 같이 하여, 尹·河·鄭 3門3대에 걸친 一夫多妻生活에서 전개되는 오랜 家禍가 끝나고 太平이 와서 모두가 富貴功名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 줄거리는 김 기동의 「韓國古典小說研究」(敎學研究社, 1983)에 나온 것을, 분명히 틀린 부분만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실은 것이다.